

KIA 박찬호 “수비는 기본·타격은 도전이죠”



올 시즌 0.248 ... 아쉬운 타율
38 타점 팀 내 2위 ‘클리치 박’
“수비는 내가 경기를 뛰는 이유
타격 기술의 벽 넘기 위해 노력
포수와의 ‘수 싸움’ 지지 않겠다”



“나 자신을 안” 박찬호가 결정적인 순간 박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박찬호에게 2021 시즌은 냉정한 시험무대다. 박찬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2019 시즌, 3루수로 공·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하며 ‘레전드’ 이범호에게 25번을 물려 받았다. 39개의 도루로 2019 시즌 도루왕에도 이름을 올렸다. 익숙한 유격수로 이동한 지난 시즌은 기대와 달랐다. 입단 후 가장 많은 141경기에 출전했지만 0.223의 타율을 기록하며 타격 약점을 노출했다. 지난 2년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주었던 만큼 올 시즌은 박찬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박찬호의 2021 시즌이 흘러가고 있다. 부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지난 6월 수비 도중 어깨 부상을 입고 재활군이 됐지만 이내 그라운드로 돌아와 좋은 수비를 보여 주고 있다. 19일 경기 전까지 타율은 0.248. 아쉬운 타율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클리치 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득점권 타율은 0.286, 38타점을 수확하면서 김선빈(42타점)에 이어 팀 내 2위다. 박찬호는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이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설정해 노력하고 있다. 수비는 ‘당연한’ 역할이다. 박찬호는 “수비는 내가 경기를 뛰는 이유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방망이로 봤을 때는 ‘시합을 왜 내보내느냐’ 그런 불만이 많을 것이다”며 “결국 내가 수비에서 시합에 나가는 이유를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반기 내야 수비 중심이었던 박찬호는 후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일 한화전에서 ‘메이저리그급’ 플레이도 선보였다.

3루수를 지나 유격수 옆으로 빠지는 노시환의 깊은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낸 뒤 정확하게 1루로 뿌려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박찬호는 “내 옆으로 빠지는 타구가 싫다. 잡아내고 싶다. 별 생각 없이 막 던져야 한다. 반복된 실수와 성공의 결과물이다”고 웃었다. 타격에 대한 스스로 평가는 냉정하다. “1군 주전 선수 중에 기술적으로 나보다 떨어지는 선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으로는 내가 가장 약할 것”이라면서도 “내 타격 능력에 벽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술적인 벽을 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올 시즌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은 ‘생각’이다. 박찬호는 “예전에는 타석에서 스스로 답답했다. 올해 정말 많이 발전한 게 사고능력인 것 같다”며 “수싸움을 많이 알게 됐다. 올 시즌 중요한 상황에서 안타, 타점을 올릴 때 대부분 수싸움이 맞아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후반기 첫 결승타도 박찬호의 차지였고, 이 순간에도 ‘수싸움’으로 벽을 넘었다. 지난 10일 한화 김범수를 상대로 결승타를 때렸던 그는 “초구에 투심이 들어왔는데 잡았다. 다음 직구를 염두에 두고 쳤는데 낮았다. 직구 타이밍이 늦었으니까 ‘또 직구를 던지겠다, 무조건 직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에 놓고 쳤다”고 설명했다. 박찬호는 단순히 투수하고만 수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포수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박찬호는 “투수도 중요하지만 포수들마다 특성이 있어서 포수가 중요한 것 같다. 또 주자가 있을 때 오히려 수싸움하기 편하다.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나오니까 주자 있는 상황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올 시즌 올림픽 휴식기는 박찬호에게 반가운 시간이 됐다. 수비 부담이 많은 포지션인 만큼 여름철 박찬호의 페이스가 푹 떨어지곤 했다. 휴식기 동안 박찬호는 웨이트와 먹는 것에 신경을 썼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 박찬호는 남은 시즌 ‘컨디션’에 신경 쓰면서 성적을 만들 계획이다. 박찬호는 “욕심을 낸다고 수치가 따라오지는 않았다. 컨디션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서 컨디션 관리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 또 결과가 안 좋은 순간에도 편하게 마음 먹으려고 한다. ‘오늘도 끝이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시즌이 끝난 뒤 스스로 납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즌 끝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만하면 됐다. 이런 느낌을 갖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연고 정읍 인상고, 대통령배 결승 진출 도전

오늘 서울 충암고와 준결승전

KIA 타이거즈의 연고 학교인 정읍 인상고가 창단 후 처음 대통령배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인상고는 20일 오전 11시 광주 시립야구장에서 서울 충암고를 상대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전을 치른다. 인상고는 앞서 지난 18일 천안 북일고와 8강전에서 4-2 승리를 거두면서 대통령배 첫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전국대회 준결승행은 두 번째다. 인상고는 지난해 10월 봉황대기에서 처음 전국대회 4강 기록을 만들었다. 전교생이 102명에 불과한 인상고는 지난 2012년 야구부를 창단한 뒤 처음 2년 연속 전국대회 4강에 성공했다. 봉황대기 4강을 이뤘던 지난해에는 첫 프로 선수도 배출했다. 포수 박제범이 SK(현 SSG)의 9라운드 지명을 받으면서 인상고 첫 프로 선수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투호,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서울서 열린다

2차전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1, 2차전 경기 장소가 각각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결정됐다. 19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대표팀은 9월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이어 9월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최종예선 2차전을 펼친다. 레바논과 2차전은 애초 원정 경기였지만 내년 1

월 27일 예정된 7차전 홈 경기와 일정을 바꿨다. 축구협회는 내년 1월 국내 홈 경기가 추운 날씨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고 경기력에도 문제가 있어 레바논축구협회와 협의해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조 추첨에서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A조에 묶였다. 6개 팀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풀리그를 치르고, 각 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각 조 3위 팀끼리는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 진출팀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AIG 여자오픈 총상금 580만 달러 ‘역대 최대’

우승 상금 약 10억 1000만원

19일 개막하는 AIG 여자오픈의 총상금 규모가 역대 여자 골프 대회를 통틀어 최대 규모인 580만 달러로 책정됐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영국 R&A는 19일 “올해 총상금 규모를 580만 달러로 늘리고, 우승 상금도 87만 달러(약 10억1000만원)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여자 골프 단일 대회의 최대 상금 규모는 US여자오픈의 550만 달러였다. AIG 여자오픈은 지난해 총상금 규모가 450만

달러였는데 올해 130만 달러를 증액했고, 2022년에는 총상금 규모를 680만 달러까지 높일 예정이다. 우승 상금은 지난해 67만5000 달러에서 올해 87만 달러로 늘었다.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지난해부터 AIG 여자오픈으로 대회 명칭이 바뀐 이 대회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가 공동 주관하며 19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커누스티 골프 링크스에서 개막한다. 이 대회는 한 해에 5개 열리는 여자 골프 메이저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리는 대회다.

/연합뉴스



파죽의 7연승으로 세계탁구선수권 태극마크를 확보한 신유빈. /연합뉴스

‘탁구요정’ 신유빈 7전 전승 1위 세계탁구선수권 국가대표 선발

남자부에서는 이상수 1위

‘탁구요정’ 신유빈(17·대한항공)이 7전 전승을 올리며 1위로 202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했다. 신유빈은 19일 전북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셋째 날 여자부 마지막 경기에서 최효주(삼성생명)를 4-1(11-9 11-5 7-11 11-6 12-10)로 제압했다. 전날까지 6명의 상대를 모두 꺾은 신유빈은 최효주까지 돌려세우며 파죽의 7전 전승을 기록했다. ‘언니’들을 모두 제치고 선두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성장한 신유빈은 이번 선발전 7경기에서 단 3세트만 내주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했다. 최효주는 이어진 자신의 마지막 경기에서 양하은(포스코에너지)에게 4-1(6-11 11-8 11-6 11-5 11-7) 역전승을 거두고 2위(5승 2패)로 선발됐다. 이시은(삼성생명)이 4승 3패로 3위에 올라 여자부 마지막 태극마크를 거머쥐었다. 7명이 출전한 남자부에서는 이상수(삼성생명)가 1위(5승 1패)로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냈다. 이어 임종훈(KGC인삼공사)과 안재현(삼성생명), 황민하(미래에셋증권) 등 3명이 나란히 4승 2패를 기록해 승점 10점으로 동률을 이뤘다. 결국 세트 득실률을 따진 결과 임종훈과 안재현이 2, 3위로 태극마크를 거머쥐었다. 이번 선발전을 통과한 6명의 선수는 세계 랭킹 순으로 우선 선발된 남자 장우진(12위), 정영식(13위·이상 미래에셋증권), 여자 전지희(14위·포스코에너지), 서효원(19위·한국마사회)과 함께 11월 23~29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파이널스에 출전한다.

/연합뉴스